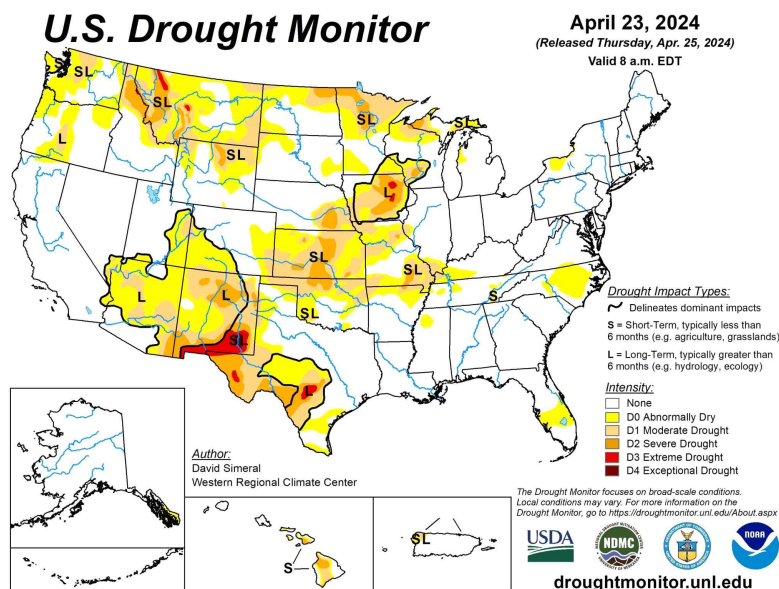




4월 30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11, No. 18)

□ 미국 기후 현황(4/21-4/27)

며칠 동안 거의 평온한 날씨가 이어진 후 미국 서부에서 연속적인 폭풍 전선이 나타났다. 그 폭풍이 오기 전에 서부는 날씨가 따뜻했던 반면 더 먼 동쪽은, 특히 중서부와 북동부에서는, 쌀쌀한 조건을 보여서 대조적이었다. 실제로 대서양 중부 및 북부 주들의 넓은 지역에 걸쳐서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5° F 낮았고 평년보다 선선한 조건이 서쪽으로 미시시피 계곡까지 확장되었다. 먼 남쪽으로 오하이오 계곡, 애팔래치아 중부, 대서양 중부 주들에서 결빙이 광범위하게 보고되었으며 테네시 계곡까지 산발적인 서리와 약한 결빙이 발생했다. (주초에는 평원 북서부 절반 전체에서 결빙이 발생했었다.) 과수가 개화하고 있거나 겨울밀이 출수 중인데 결빙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생산자들이 피해 표지 여부에 대해서 작물들을 모니터링했다. 대조적으로 산간 서부 전역의 수많은 곳들에서는, 북부 및 중부 고원과 아울러,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5° F 이상 높았다. 그런 기상 패턴이 변화하기 시작하자 4월 25일부터 시작해서 태평양 북서부와 중남부 전역에 별도의 강우 지역이 발달했다. 그 날은 여러 개의 토네이도가, 주로 콜로라도, 캔자스, 오클라호마에서, 생기면서 장기간의 악천후가 시작된 날이기도 했다. 그 후에 그 악천후의 발발은 4월 26-27일에 최고조에 달했고, 예비 보고에 따르면 평원과 옥수수 지대 서부 전역에서 100개가 넘는 토네이도가 발견되었다. 또한 일부 뇌우들은 폭우를 발생시켰고 강풍과 큰 우박으로 지역에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그밖에 서부에서는 주기적인 비와 눈 소나기가 곳곳에 내렸고 다른 한편으로 남부와 동부 대부분에서는 오랫동안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서 봄 파종을 포함한 야외 작업에게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고원의 남쪽 절반에서는 건조함이 지속되어 가뭄에 스트레스를 받은 겨울 밀에게 이어서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 농업 현황 요약(4/22-4/28)

대분지, 미시시피 계곡, 대평원, 로키산맥 그리고 남서부를 아우르는 광대한 구역들은 평년 대비 최소 두 배의 주간 강수량을 기록했다. 캔자스 동부 일부에는 최소 6인치의 비가 내렸다. 한편 국내 중앙 구역과 서부의 대부분은 해당 주간 평년 이상의 기온을 기록했다. 대평원과 로키산맥의 일부는 평년보다 6° F 이상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대조적으로 국내 동부 3분의 1 대부분은 평년보다 선선했다. 켄터키 동부, 대서양 중부 및 북동부의 몇 곳들은 평년보다 6° F 이상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 세계 기후 현황(4/21-4/27)

■ 유럽:

시기에 맞지 않는 폭한이 유럽 대부분을 덮쳤고 서부와 중부 재배 지역에는 추가로 소나기가 내렸으며 대륙 남동쪽 일부에서는 폭우로 바뀌었다. 급격히 더 추워진 날씨 (평년보다 3-7° C 낮음)가 유럽 전체로 확산되어 프랑스 중부와 동부에서부터 동쪽으로 폴란드와 주변까지 심한 결빙 (-8~-2° C)이 생식기 겨울작물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그 한파가 스페인과 영국의 북부 지역에 있는 겨울곡물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그 강한 결빙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는 이번 주 공보의 29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럽 서부 및 중부 대부분에 걸쳐 매우 가변적이기는 하지만 광범위한 소나기 (2-55 mm)가 겨울 곡물들과 유지작물들에게 적당하거나 국지적으로 풍부한 수분 공급을 유지했다. 비록 서부 및 중부 유럽의 많은 지역에 걸쳐 매우 가변적이긴 했지만 광범위하게 내린 소나기(2~55mm)가 지역적으로 겨울 곡물 및 유지종자를 위한 수분 공급을 적절하거나 풍부하게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보통 내지 강한 비가 발트해 국가들을 둘러싸면서 안으로 들어와 (국지적으로 40 mm 초과) 야외 작업의 속도를 늦추기는 했지만, 동독과 폴란드에서는 날씨가 건조하여 봄 곡물과 여름작물의 파종 작업을 촉진했다. 한편 발칸반도에서는 10-55 mm의 강우가, 그 비가 세르비아 북부, 크로아티아 동부 및 헝가리 서부는 대체로 우회하기는 했지만, 토양 수분의 결핍을 완화했고 생식기 겨울 작물들의 전망을 개선했다.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북부에서는 보통 내지 강한 비 (국지적으로 60 mm 초과)가 생식기 겨울 곡물들과 출현 중인 여름작물들을 위한 수분 공급을 올려주었다.



■ 구소련(서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된 반면 서부 재배 지역은 비가 내리고 시원하여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우크라이나 남부에서부터 러시아까지 기온이 평년 대비 평균 4-9° C 높아서 겨울 작물의 성장을 촉진했으나 토양 수분의 손실은 가중되었다. 특히 러시아 남부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0도 초중반까지 올라가면서 겨울 밀의 발달을 재촉하여 평균보다 최대 2주 앞서 출수기를 향하여 또는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했다. 위와 같은 주요 겨울 작물 지역들 중에서 많은 곳들에 2월초 이후로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이번 주에 내린 고립된 소나기 (5 mm 이하)가 발달 중인 가뭄에 대한 우려를 거의 완화시켜주지 못했다. 그러나 봄 곡물 및 여름작물의 파종은 밀리지 않고 진행되었다. 지나간 주들과 마찬가지로 몰도바, 우크라이나의 중부와 서부, 벨로루시 및 러시아 북서부 전역에 보통 내지 강한 비 (10-70 mm)가 내려서 출현 중인 북쪽의 봄 곡물들과 영양기 후기에 있는 남부의 겨울 작물들을 위한 수분 보유량을 올려주었으나 야외 작업은 축소시켰다. 흐리거나 소나기가 내리는 서부의 날씨는 거의 평년에 가깝거나 그보다 낮은 기온을 동반했다 (먼 서부에서는 평년보다 최대 4° C 낮았다).

■ 동아시아:

중국 남부에서는 매일 소나기가 내려서 생식기에 가까워진 조생 벼를 위한 수분 공급을 올려주었다. 어떤 지역에서는 강우량이 총 200 mm를 넘었고 2주 총량은 400 mm에 육박했다. 장강 계곡으로는 강우가 약해졌고 (25 mm 미만) 보다 드문드문 내렸는데 이곳에는 유체가 개화중이어서 추가적인 수분이 있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밀 지역에서는 강수 (10-50 mm)가 화북평원의 최동단과 최북단으로 한정되었다; 봄 강우가 거의 정상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서 생식기 중에 있는 이 작물에게 양호한 토양 수분을 유지해주었다. 더욱이 그 기간 동안 모든 겨울 작물 지역들에서 기온이 평균보다 4° C나 높아서 작물의 발달을 촉진했으나 수분 요구량은 증가했다. 그밖에 중국 서부에서는 면화 파종이 진행되었고 한편 계절에 맞지 않게 온화한 북동쪽에서는 옥수수과 대두의 파종 활동이 확대되었다. 또한 한반도와 일본은 평년보다 날씨가 따뜻하여 벼 파종을 할 수 있었다.

■ 호주:

해당 주간을 습하게 시작한 (10-50 mm, 국지적으로 더 많음) 이후 퀸즐랜드 남부에서는 건조한 날씨로 덮이면서 면화와 수수의 수확과 겨울 밀의 파종이 꾸준한 추진력을 가지고 회복할 수 있었다. 더 남쪽으로 뉴사우스웨일즈와 빅토리아 북부 전역에서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만연하여 여름작물의 수확과 초겨울 작물의 파종이 지연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호주 동부 전역에서는 맑은 하늘, 온화한 기온 그리고 평균 내지 평균 이상의 표토 수분 등이 조합되면서 최근에 파종된 겨울 곡물들과 유지작물들의 발아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밀 지대 내 다른 곳을 보면, 남호주와 서호주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농민들은 겨울작물들을 건식 파종해왔으나 일부 농민들은 파종 전에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여하튼 토양 수분 프로파일을 채우고 겨울 작물의 파종과 출현을 촉진하려면 이 주들에 더 많은 비가 내려야 한다. 기온은 남호주에서는 평년보다 평균 2-4° C 낮았고 밀 지대 내 그 밖의 곳에서는 평년에 가깝거나 평년보다 다소 낮았으며, 최고 기온은 일반적으로 섭씨 20도 초중반이었다.

■ 아르헨티나:

오랜 소나기가 여름작물의 수확을 느리게 만들었으나 겨울작물의 활착을 위한 추가 수분을 공급했다. 보통 내지 강한 비 (25-100 mm, 국지적으로 더 높음)가 부에노스아이레스 북부 그리고 코리엔테스 및 파라과이 남부와 그 주변에 있는 북부 지점들에서는 계속되었다. 그 이외의 곳들에서는 더 적은 양이 기록되었는데, 특히 우기가 잦아지는 연중 이맘때 일반적으로 점차 더 건조한 상태를 경험하는 서부 농업 지역들 (코르도바와 살타에서 두드러지게)에서 그러했다. 주간 평균 기온은 남부 농업 지역들에서는 평년보다 1-2° C 낮았고 먼 북쪽에서는 평년보다 5° C 높은 범위를 보였으며 라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최남단 생산 지역들에서는 야간 저온이 거의 영하권으로 떨어졌다.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0도 중후반에 도달하면서 북부 농업 지역들에서는 면화 등, 여름작물들의 성숙과 건조를 재촉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옥수수와 대두는 4월 25일 현재 둘 다 23 퍼센트 수확되었고 면화는 14 퍼센트 수확되었다.

■ 브라질:

브라질 중부의 핵심 생산 지역들에서 따뜻하고 화창한 날씨가 옥수수와 면화의 빠른 발달을 촉진했다. 마투그로수두술과 파라나 중부에서부터 북쪽으로 바히야까지, 고이아스 대부분과 마투그로수에서 여기와 인접한 부분들을 포함하여,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고 최고 기온은 매일 섭씨 30도 중반에 이르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양한 수준으로 내린 소나기 (10-50 mm)가 먼 북쪽 (마란하오와 그 주변)과 남부 생산 지역 (히우그란지두술과 파라나 남부)에서 미성숙한 작물들에게 유익을 주었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4월 22일 현재 2기작 옥수수의 80 퍼센트 이상이 개화했고 한편 1기작 옥수수 (97 퍼센트)와 대두 (99 퍼센트)의 수확은 거의 완료되었다.